



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1/5 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seokhwan.kim@miraeasset.com 윤재홍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Jaehong.yoon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VOTERS

Board



아드리아나 쿠글러
이사

(9/7) 임기는 2026년 1월 31일 까지. 세계은행과 노동부에서 미국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. 현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 및 경제학교수로 재직 중



마이클 바
부의장

(11/17) 2%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히 제한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취해야 하는 정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어. 최근 데이터는 과잉-과소 긴축 간 균형 이뤄



리사 쿡
이사

(11/16)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과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'연착륙'이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아. 양면의 위험 있기 때문에 '균형'이 중요



필립 제퍼슨
부의장

(11/14)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치 유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 취할 수도



제롬 파월
의장

(12/13) 최고 금리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. 이전 금리인상의 긴축 효과 나타날 것. 추가 금리인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금리인하 논의가 더 적절.



크리스토퍼 월러
이사

(11/28) 현재 정책이 2% 목표 물가로 되돌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확신 더 커져. 인플레이션 하락한다면 높은 금리 유지해야 할 필요 없어져.



미셸 보우먼
이사

(11/28)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었거나 2%로 낮추기에 불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경우 기준금리 인상 지지.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격 상승 압력 키워

FRB



라파엘 보스틱
애틀랜타

(12/19)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할 '긴급함' 없어. 향후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천천히 내려갈 것. 내년 하반기 2회 정도의 금리인하 전망. 미국 경제 매우 탄력적.



메리 델리
샌프란시스코

(12/19) 금리와 인플레이션 전망이 12월 SEP와 거의 비슷. 내년 3번 금리 인하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. 노동시장에 적은 혼란 주면서 목표 달성해야.



토마스 바킨
리치몬드

(1/3)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반드시 달성 가능하지는 않아. 장기금리 하락,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 수요를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.



존 윌리엄스
뉴욕

(12/15) 금리 인하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.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통화정책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하고 있어.



로레타 메스터
클리블랜드

(12/18) 지금은 금리인하가 아닌 제한적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. 이 부분에서 시장은 조금 앞서 있어. 현재 연준의 정책은 좋은 위치.

※ 24년 6월 말, 퇴임 예정

NONVOTERS

Alternate



오스탄 굴스비
시카고

(12/19) 우리는 미래에 대해 추측적으로 특정 정책을 논의하지 않아. 지금 시장의 반응은 다소 혼란스러워. 향후 노동시장 둔화로 정책의 포커스를 옮길 필요.



패트릭 하커
필라델피아

(12/20) 금리인하 중요하지만 너무 빨리 할 필요도, 당장 해야 할 이유도 없어. 미국 경제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. 연착륙 가능성 높지만, 쉽지 않은 것.



수잔 콜린스
보스턴

(11/17) 데이터는 너무 혼재되어 있고 우리가 본 진행 상황은 상당히 고르지 않아.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갈 길 멀어.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.



로리 K. 로건
델러스

(11/7) 인플레이션 수치는 2%가 아닌 3%를 향해 추세를 보이고 있어. 강력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연준은 그러한 기대 충족시켜야



제프리 슈미트
캔자스시티

(8/2) 오는 8월 21일부터 10년 동안의 임기 시작. 그는 FDIC 경력을 포함해 40년 이상 은행 및 규제 관련 경험 보유. 오마하 뮤추얼 은행 설립 및 CEO 역임



닐 카시카리
미니애폴리스

(11/7)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연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아.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제 활동은 우리가 충분히 했는지 의문.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조치 취할 것



캐서린 오닐 페이즈
세인트루이스(8.15~ 임시)

NONVOTERS

※ 직무대행